

“국내외 출판사 간의 교류에 디딤돌 되고 싶다”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의 포스터는 ‘만남’을 상징한다. 책과 사람의 만남, 아날로그 책 문화와 디지털 콘텐츠의 만남이다. 이 만남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지 않으려는 듯 대교문화재단이 도서전 참가 출판사들의 현장진행경비로 1억원을 내놓아 화제다.

“국제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출판사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성격이 문화적인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해서 문화를 활성화하느냐가 고민거리죠.” 대교문화재단 윤현중 사무국장은 이번 도서전이 출판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식과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문화 콘텐츠의 질량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이번 국제도서전의 활성화를 도와야겠다고 판단돼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재단측은 많은 출판사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출판문화에 기여하는 출판사들이 도서전에 참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어린이 눈에 맞춘 숲속작은도서관의 책꽂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지 강영중 이사장과 윤현중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은 특유의 가족적인 분위기로 뭉쳐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들은 어린이 창작동시전 등의 공모전에 ‘어린이 작가’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기발한 상상력의 출품작을 만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재단측은 1992년부터 꾸준히 학생들을 후원하는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장학금으로 5,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선생님에게 상을 수여하는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육 발전에 정진하는 교원에게 선사하는 눈높이 교육상이 그것이죠.” 수상한 교사들의 교육사례를 책으로 엮기도 한 재단은 2001년에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국제학술대회에 지원을 하면서 학술연구를 하는 인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꺼리’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셈이다. “우리 재단은 대교출판, 대교네트워크, 도시와 사람, 캐나다, 홍콩 해외법인 등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 회사가 출연한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아주 중요하죠.”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원의 제한성도 있지만 우선 기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재단은 현재 어린이 창작 동시전 입상작 전시 준비로 한창 바쁘다. “내년에는 교육문화사업 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공익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열의를 갖고 후원한 만큼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세계적인 국제도서전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측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이 독서인구를 늘리고 국내외 출판사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글로벌 출판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청연 기자